



주말이 즐겁다 프로야구 내일 개막

“Again 2009”... 호랑이들의 포효

“개인 타이틀보다는 팀 우승을 우선으로 하겠다.” 2일 개막전을 치르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주전 선수들의 하나같은 다짐이다. 특히 최강클린업 트리오 ‘LCK타선’은 최고의 화력을 예고하고 있어 KIA가 ‘거포군단’ 타이거즈의 영광을 재현할지 주목된다.



30홈런 목표, 우승위해 달리겠다

◇최희섭=페이스가 좋지 않았는데 마지막 연습경기에서 홈런을 기록해서 부담도 덜고 기분도 좋다. 일단 30홈런을 목표로 달리겠다. 이번 호도 새로운 팀원이 됐고 중심에서 좋은 역할을 하다 보면 팀 성적도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최근 아들을 얻었는데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도록 하겠다.

다승·방어율 타이틀 욕심낼 것

◇윤석민=지난해 팬들과 선수단에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프로다운 모습으로 에이스라는 소리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아시안게임을 통해 자신감도 찾았고 새로운 구경도 더했다. 다승·방어율이라는 타이틀에도 욕심을 내 최고의 한해를 만들겠다.

주장으로 후배들 위해 뒤편지 할 것

◇김상훈=다시 주장의 임무를 맡았다. 개인적인 욕심은 없다. 내 목표는 오로지 팀이 잘 되는 것 하나다. 늘 따뜻하게 격려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던 장인어른이 며칠 전에 돌아가셔서 마음이 좋지 않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15승 투 올해는 반드시 명예회복

◇로페즈=다시 한번 챔피언팀의 투수가 되는 게 한국에서 세 번째 시즌을 맞는 내 바람이다. 지난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하지만 올 시즌 준비가 잘 됐고 컨디션도 좋다. KIA의 우승을 위해 그리고 명예회복을 위해 15승 고지를 목표로 최고의 피칭을 선보이겠다.

80타점·100득점 3번타자 위용 보일 것

◇이범호=꼭 우승을 해보고 싶다. 아마시절과 프로 통틀어 아직 한 번도 우승해보지 못했다. 팀의 우승을 위해 80타점 100득점을 노리겠다. 내 뒤에 최희섭, 김상현이 버티고 있는 만큼 3번 타자로서 최대한 많이 출루해서 홈을 밟겠다. 그래서 득점에 더 많은 비중을 뒀다. 올 시즌 감이 좋다.

장타 NO... 최다안타로 팀 승리 일조

◇이용규=장타 욕심은 없다. 토타자로 최다안타 타이틀에 도전하겠다. 두산 김현수, 롯데 이대호는 올 시즌 상대팀의 견제를 많이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SK의 정근우가 경쟁 상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도루는 갯수보다는 성공 가능성과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겠다.

‘LCK의 핵’ 홈런포 지켜봐 달라

◇김상현=목표는 최소 30홈런이다. 타율도 0.280 이상을 기록해 자신감을 지키겠다. 좌익수로 포지션 이동이 있었지만 잘 적응했고 큰 실수없이 역할을 해내고 있다. 얼마나 잘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고 보는 시선도 있지만 의식하지 않고 KIA의 명실상부한 중심타자로 자리할 수 있는 해를 만들겠다.

20-20클럽 가입 ‘호타준족’에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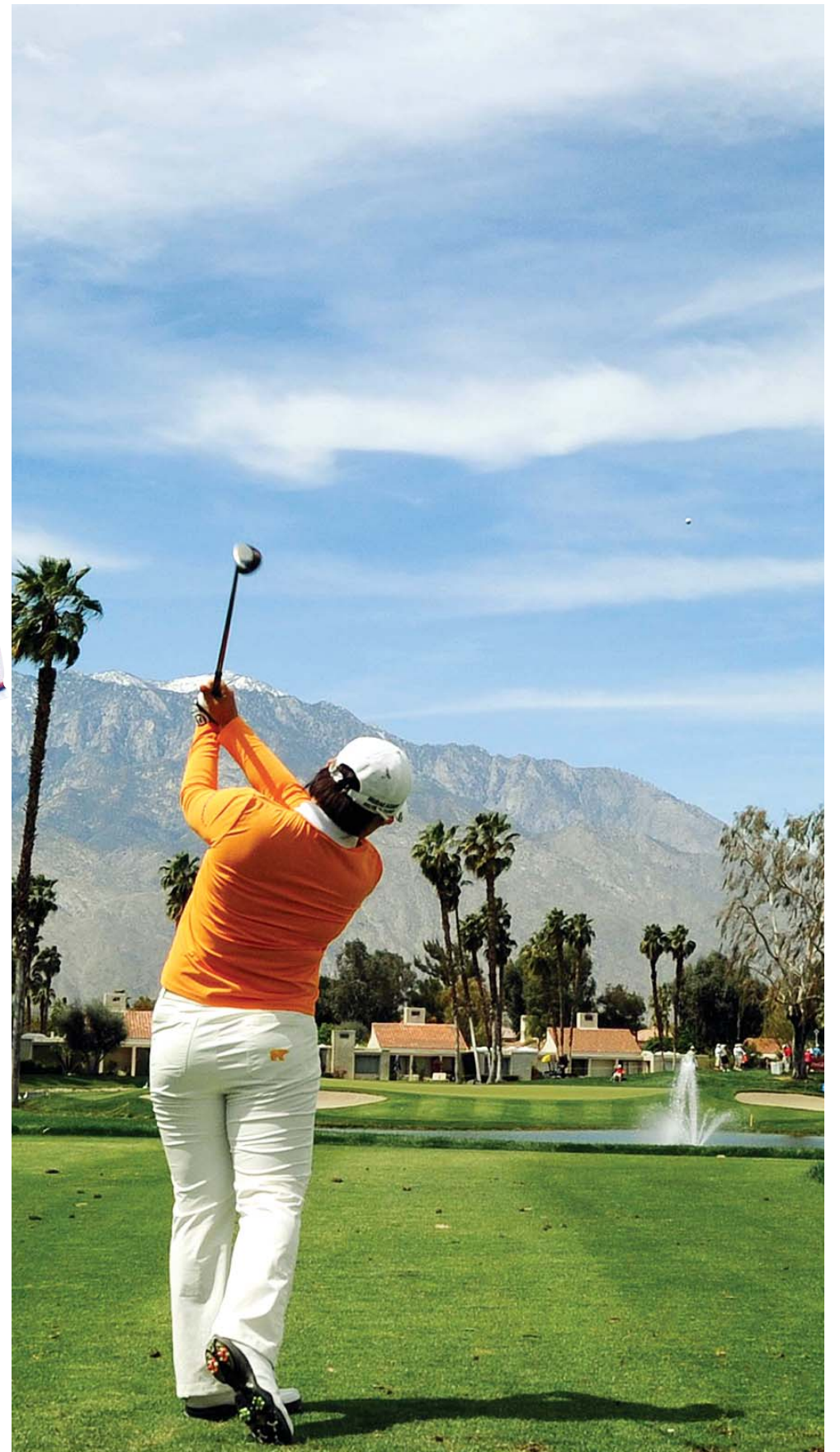
◇안치홍=열심히 재활을 하면서 세 번째 시즌을 준비했다. 재활을 하느라 완벽하게 훈련을 하지 못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시범경기와 연습경기를 하면서 페이스를 많이 끌어올렸다. 아직 20홈런 고지를 밟지 못했다. 올해는 20-20을 목표로 달리면서 진정한 호타준족으로 거듭나겠다.

만행담계 술선수부... 풀 타임 출장 목표

◇이종범=부상 없이 풀타임 출장을 노리겠다. 만행으로 서 모범을 보이면서 선수단을 이끌어 나가 다시 한 번 우승 현장에 서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상 없이 꾸준한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어떤 기록에 도전하기보다는 시즌 내내 좋은 모습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

더 매섭고 날렵하게 3할타에 30도루

◇김선빈=시즌이 시작된다 하니까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된다. 지난 시즌에는 0.293의 타율과 23 도루를 기록했다. 올해는 이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3할 그리고 30도루를 목표로 내걸었다. 더 매섭고 날렵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나비스코는 잡는다” 여자 프로골프 세계랭킹 2위 신지애가 31일(한국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란초 미라지의 미션힐스 GC에서 열린 LPGA투어 크래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 프로-암 라운드 5번 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KPGA 개막전 첫날부터 장타쇼

류현우·앤드류 슈딘 공동 1위

김대현(23·하이트)과 이진규(23·티웨이항공)가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2011시즌 개막전인 티웨이항공오픈(총상금 3억원) 1라운드에서 화끈한 장타 대결을 벌였다.

지난 31일 제주 오라골프장 동서코스(파72·7195야드)에서 열린 1라운드에서 김대현은 버디 8개와 보기 3개를 묶어 5언더파 67타를 쳐 단독 3위로 첫날을 마쳤다. 이날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지난 시즌까지 4년 연속 KPGA 장타 왕에 오른 김대현과 전날 장타 대회에서 우승한 이진규의 ‘거리 대결’이었다. 같은 조로 출발한 둘은 53야드 4번 홀(파5)에서 장타 솜씨를 마음껏 뽐냈다.

김대현은 티샷을 320야드까지 날리고 나서 두 번째 샷으로 그린에 올려 홀 왼쪽 8m 지점에서 이

글 기회를 잡았으나 아쉽게 버디로 홀 아웃했다.

이진규 역시 4번 홀에서 티샷으로 310야드를 보낸 뒤 두 번째 샷을 그린 앞 5m 지점으로 보내 가볍게 한 타를 줄였다. 코스 중 가장 긴 홀인 640야드 6번 홀(파5)에서도 둘은 티샷을 330야드까지 보내는 장타 솜씨를 과시했다.

올해 신인인 이진규는 버디 5개와 보기 1개로 4언더파 68타를 기록, 이승호(25·토마토저축은행) 등과 함께 공동 4위에 올랐다.

1라운드 선두는 나란히 6언더파 66타의 성적을 낸 류현우(31·토마토저축은행)와 앤드류 슈딘(호주)이 차지했다.

황인준(37·토마토저축은행), 강경남(28) 등 8명이 3언더파 69타를 쳐 공동 9위에 올랐다. 배상문(26)은 1오버파 73타로 공동 58위, 광저우 아시안게임 2관왕인 김민휘(19)는 6오버파 78타로 공동 117위로 처졌다. /연합뉴스

2일 프로야구 개막전에 출전할 8개 구단 엔트리가 발표됐다. KIA는 개막전 선발 윤석민 등 투수 10명, 김상훈·차일목 포수 2명, 최희섭을 필두로 한 내야수 8명, 마형 이종범을 앞세운 외야수 6명 등 26명으로 엔트리를 꾸렸다. 손바닥 부상으로 2군에서 훈련을 했던 나지완도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발빠른 신인 윤정우도 안방에서 데뷔

KIA 광주 개막전 엔트리 발표

전을 치를 기회를 얻었다. 기대를 모았던 투수 홍건희는 개막전 엔트리에 들지 못했다.

한편 8개 구단 개막전 엔트리 208명의 평균 연봉은 1억2728만원으로 나타났다. 8개 구단 선수 연봉 총액은 264억7500만

원보다 지난해(258억3785만원)보다 8억 원 이상 증가했다.

SK의 평균연봉(1억8054만원)은 연봉 총액 최하위팀인 한화(7862만원)의 두 배가 넘었다. KIA의 연봉 총액은 35억3400만원, 평

균연봉은 1억3592만원이다.

◇KIA 개막전 엔트리

▲투수(10명) = 손영민 김희걸 신용운 윤석민 유동훈 박경태 양현종 박성호 광정철 트레비스 ▲포수(2명) = 김상훈 차일목 ▲내야수(8명) = 김선빈 박기남 안치홍 김주형 최희섭 이범호 김상현 이현곤 ▲외야수(6명) = 신종길 이종범 이용규 김다원 나지완 윤정우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그 동안 TV에서만 보 왔던 『전주 ‘흥’콩나물국밥』

콩나물국밥으로는 대한민국 최고라는 명성



2011년, 가장 주목할 국밥프랜차이즈 **흥시대옥**
 본격적인 전국 가맹점 모집 **현대옥** 검색

광주 상무점 [센트럴파크호텔 옆] 062-383-1174
 광주 첨단점 [고려조 삼계탕 옆] 062-971-5844
 순천법조타운점 [순천법조타운 옆] 061-726-1009
 광주 수완점 오픈준비중 (4월 말 오픈)